

간호사 위한 '법률·노무 무료상담' 서비스

간협 회원복지몰 '넬스라이프'에서 제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1:1 전문상담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몰 '넬스라이프' 홈페이지 중 법률 및 노무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화면.

"법을 및 노무 문제 해결! 온라인 무료상담 서비스 신중하세 요!"

대한간호협회는 법률 및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맡아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준다.

무료상담이 필요한 간호사는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회원복지몰 '넬스라이프' 홈페이지(www.nurselif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최근 넬스라이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해 무료상담 서비스 시스템

을 업그레이드했다.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특히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1:1 상담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법률 및 노무 무료상담 서비스 방식을 기존 비공개 게시판 형태에서 1:1 상담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 및 노무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상담에 대한 답변이 게시되면 알림 문자를 보내주며, 상담결과를 이메일로도 보내준다. 상담 진행 상황과 자신의 전체 상담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법률상담은 간호사 출신 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이로)가 맡고 있다.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행사·행정상의 법률적 문제, 의료분쟁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노무상담은 김태철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송민 대표)가 맡고 있다.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휴가 및 휴직, 근로계약, 산업재해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전화해 해도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KNA연수원에서 열었다.

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열려

사업시행결과 보고받아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6월 21~22일 KNA연수원에서 열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업시행결과와 회계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간호협회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펼친 정책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간호협회는 현안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전달하고, 개선탄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앞으로도 새 정부 정

책방향과 공약에 맞춰 능동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6월 20일 개최한 사회분과위원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간담회에 다녀왔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간호사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의 참석자들이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교육이 실시됐으며, 김민수 삼정KPMG 사이버보안 상무가 진행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남자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대체복무 추진

기동민 의원,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남자간호사는 간호장교로, 남자간호대학생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6월 19일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방 공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 있는 내국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사·치과의사·한의학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해 의료취약지 보건소·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에 대해선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대학 남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간호장교로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군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법의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학사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특법 제2조제1호)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병적편입 분야로 기존 의무·법무·군중·수의에 추가해 '간호'를 신설해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간호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고, 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간호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58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2)

한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을 6월 12일 발의했다. (간호사신문 6월 22일자 1면 보도)

주혜진 기자 hjoo@

한국 건강보험제도 40주년 맞아

글로벌 건강보장 선도해 나아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40주년을 맞이했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로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불과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됐다. 지난 40년간 단일보험자 관리체계, 재정위기 극복,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왔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OECD에서 보건의료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권장모델로 선정될 만큼 체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 주제로 6월 20일 공동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건강보험 40년 그리고 글로벌 리더의 길" 주제로 기조연설한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대미문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 보고됐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1977년에 시작해 12년 만에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포괄 적용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세계의 사회의료보험사에서 최단기간에 달성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의료보험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만들어주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쌓아온 빅데이터는 정밀의학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보물창고이자 국가의 신성장 동력원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 분야의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 낭비 요소를 줄

이고 환자중심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용을 절감해 국민에게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자"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길이 바로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에 맞닿아 있다"고 조인했다.

'UHC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성과' 주제로 기조연설한 데이비드 니콜슨(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교수는 "한국의 의료보험은 매우 포괄적이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제로 달성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며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건강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라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어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 및 개혁해 나갈 때는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목적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개회사, 김승택 심평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축사를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의 의료안정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세계 표준모델로서 글로벌 건강보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대한간호협회에서 드리는
특급 복지 혜택!
20,000*
포인트를 드립니다.

Nurselife
NURSELIFE POINT
20,000

지급대상	2017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지급내용	회원복지포인트 20,000포인트
지급시점	회원등록 시(중요정보 DB 등록시점)
유효기간	등록시점으로부터 3년
사용방법	넬스라이프(www.nurselife.or.kr) 접속 → My KNA에서 확인 → RNshop에서 6,000여가지 다양한 상품 구매가능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국 1566-3137
Nurselife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응시분야

직렬	세부응시자격	인원
간호직	<필수사항>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8년 간호사 면허증 미취득 시 합격 취소 <우대사항> - 기졸업자(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1년 이상 경력자	000명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우대

지원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지원(<http://recruit.ncc.re.kr>)

전형절차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6. 26(월) ~ 2017. 7. 11(화) 17:00
※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일정 개별통보

제출서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무사 면접 시 제출)

- 학력(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 성적증명서는 석차기제)
- 영어시험성적(TOEIC, TOEFL, TEPS) 및 자격증(전산자격 등) 사본
- ※ 영어점수 필수(유료기간 경과여부 관계없이 성적제출 가능)
- ※ 자격증(전산자격 등) 사본은 소지자에 한해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기 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암센터 인사관련 규정 등에 의함
- 해당분야에 자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초 임용계약(1년) 종료 전 재계약 임용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음
- 국립암센터는 금연운동 선도기관으로 흡연자의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됨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이 제한됨

문 의 처

○ 채용에 관한 문의는 국립암센터 인사관리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31-920-1966, e-mail : jw201@ncc.re.kr)

